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1호, 93-114, 2016.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이 유 정** · 오 성 배***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거주 지역에 주목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3차년도(2007) 조사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부모 4,8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한부모 가정 여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학습지원활동)은 거주 지역,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시간과 비용, 부모의 문화적 자본, 교우관계와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점은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제로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지역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가정배경, 가정내 사회적 자본

논문 접수: 2016/02/02 수정본 접수: 2016/03/09 게재 승인: 2015/03/23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ohsb@dau.ac.kr)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그간 대도시 중심 경제 정책과 1차 산업 위주의 농촌경제구조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을 경험하였다(강태중, 2007). 농촌, 지방, 비수도권인 지리적 열세와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노령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전반적인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자본의 집중, 활성화된 투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며 농촌과의 격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침체 가운데에서 농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낙후된 교육환경을 경험한다. 전체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와 학급 규모가 과소화 되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며, 교원 수급에도 문제를 겪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농촌 학생들은 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을 하고, 복식학급에 재학하게 되는 등 학습권을 제한받고 있다(김양분 외, 2009;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 2011). 더구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사교육 환경 등에 대한 접근도 어렵고 그 기회도 제한되어 공교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데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성기선 외, 2009; 이정선, 2005; 최상근 외, 2003).

이와 같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은 교육 경험에 의한 변화과정을 거쳐 교육 결과의 격차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있어 열세에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강상진, 2010; 김성숙, 2010; 류방란, 김성식, 2006). 더욱이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교육 양극화의 양상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시지역은 국가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급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사교육 환경이 완성된다. 그러나 과소화 되고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취약한 농촌은 효율성 측면을 중요시하는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의 투자에만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이재연, 양정호, 2012). 이러한 상황을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도농간 교육여건의 양극화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감소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인적, 경제적 자본과 차별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인적 자본이나 경제적 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개별 행위자나 생산 수단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구조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 정보 획득의 채널,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oleman, 1988).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에 주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양질의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가정배경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류방란, 김성식, 2006; 안우환, 2003; 원지영, 2009).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인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는 작동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거주 지역에 주목하여,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실태와 원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자본의 유출은 전반적인 농촌의 쇠락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기회가 풍부해지는 반면, 농촌지역은 소득과 자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빈약해지고, 사회·문화적 자본이 취약하게 되었다(김창현 외, 2004).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교육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가 투입·과정·결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사회지표와 선행 연구결과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교육 투입의 맥락에서 각종 사회지표와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대수준,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조사·발표된 「사회조사」(통계청, 2014) 결과를 통하여 지역 간 학생의 교육기대수준에 지속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교육을 기대하는 비율은 높고, ‘4년제 이상 대학’과 ‘대학원(석·박사)’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4년제 이상 대학’ 수준의 경우,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도시지역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도 학생의 교육기대수준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지역의 부모에 비해 읍면지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교’의 교육수준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대학원(석·박사)’을 기대한 비율은 더 낮았다. 이처럼 지역규모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대수준 차이 즉, 읍면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교육기대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성은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남궁지영 외, 2013; 2014; 박정호 외, 2015).

교육기대수준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투입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총 교육비에 비해 비교적 가정의 교육적 의향과 교육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2014년 「사교육비조사」(통계청, 2015)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규모에 따라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역규모에 따른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의 차이는 투입의 단계뿐만 아니라 과정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규모나 시설, 교원의 수 등은 교육 환경과 재정 및 행정의 효율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생관리 및 교사 업무 관리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규모를 지역규모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경우 각 학교급에서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상황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의 경우 중·대규모의 학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급이 낮아 질수록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읍면지역 중·고등학교들이 현재의 학교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규모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재학생이 적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적기에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교원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규모뿐만 아니라 학급 규모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이나 도서벽지와 같은 농촌지역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1년 지역규모별 복식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의 복식학급은 초등학교 1184개 학급, 중·고등학교 10개 학급에 이르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복식학급은 초등학교 58개 학급, 중·고등학교 3개 학급에 불과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와 같은 복식학급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공 교사에게 수업 받지 못하는 수업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교사 입장에서라도 수업부담이 발생한다.

이상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를 드러내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 지역 간 교육 여건에 여

전히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 여건과 환경의 격차가 교육 결과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국어		영어		수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3	대도시	207.96	27.97	201.00	36.41	193.62	30.89
	중소도시	206.34	26.94	196.27	34.82	190.12	29.98
	읍면지역	202.88	25.74	187.37	30.13	183.70	27.20
고2	대도시	209.93	25.36	213.75	27.78	206.48	34.65
	중소도시	208.28	24.36	210.20	27.25	200.85	31.82
	읍면지역	207.19	24.20	207.78	26.59	199.71	31.54

※ 출처 : 이인호, 이상일, 김승현(2014a; 2014b; 2014c)을 토대로 재구성.

표 1에서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주요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취도에서의 격차가 국어과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간의 격차를 도시와 농촌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간 또는 도시 내부의 거주지 분화로 확대하여 접근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김양분 외(2009)가 2003년에서 2009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저소득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수능 성적이 낮고, 학원 수가 많은 지역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준종(2004)은 서울특별시 25개의 행정구역과 11개 학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거주민의 교육수준, 상급학교 진학률, 주민의 직업 모두에서 강남지역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비강남지역 내부에서도 도시 재개발 여부에 따라 계층화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임선희, 김경희(2006)는 대전의 구도심인 동부지역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신도심이 된 서부지역 보다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과 초·중·고교 중도탈락률은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더 낮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안우환(2006)은 대구의 초등학교 6학년생의 학업성취도를 구성, 비수성학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성학군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지표와 선행연구를 통해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의 교육 전 상황에서 지역 간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학생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투입과 과정,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교육 불평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주요한 성취도 평가가 치러질 때마다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곧 보고해왔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에 대한 설명에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강태중, 2007).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Willms(1985; 1987)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현상을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라고 이름 붙이고, 이러한 맥락효과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특성과 별도로 고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남궁지영 외(2014)도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성호(2012)는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농촌지역의 학교는 학생들의 구성특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이로 인해 성취동기나 자아개념 등이 낮으며 전반적인 성취도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조손가정 등이 많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성기선, 2011). 이외에 도농간 학력격차의 원인을 학교 특성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김성식(2006)은 학교의 다양한 풍토 변인 중 학업성취 강조 변인과 공동체적 풍토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은 많은 교사들이 농촌 학교의 근무를 꺼리면서 우수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시골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지역으로 진학하면서 도시와 시골지역의 학력격차가 확대된다고 보고하였다(강태중, 2007; 오성배, 2005).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격차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확대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농촌지역 주민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이농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농의 증가는 농촌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학생 수 감소, 교육여건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와 연결되어 농어촌 교육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격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정배경과 독립적으로 교육격차에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최근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주목을 받고 있다(신원영, 강현아, 2008). 사회적 자본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이나 경제자본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Astone & McLanahan, 1991; Milne et al., 1986). Coleman(1988)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모가 지닌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풍부한 경제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아동의 교육적 성취와 무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가시적인 사회적 자본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한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가정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n Family)’과 ‘가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하위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촉진 또는 방해요인을 측정하는 간접 지표와 대상간의 관계 친밀도를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직접 지표로 구분하였다(이규재, 2003). Coleman이 제시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표로는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학업과 관련한 대화, 학교활동 참여, 학습 지도 및 지원, 부모의 자녀 성취 기대수준, 자녀 생활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신원영, 강현아, 2008). 간접적인 지표로는 한부모 가정 여부와 부모 외 성인가족의 존재여부, 형제자매의 수 등이 있다.

간접적인 지표 가운데 한부모 가정 여부는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인 부모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oleman(1988)은 결손가족과 부분적으로 핵가족 내에서 아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하여 관계를 맺을 대상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으로 결핍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들 또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구인회(2003)의 연구는 한국 노동패널 1998~2001 자료를 분석하여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양부모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학력연수가 약 0.28년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빈곤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대상의 부재와 부재를 측정하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 여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모 외 성인가족의 존재 여부는 부모를 제외하고 가족 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성인의 존재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동거 여부를 통해 측정된다.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정과 같은 구조적 결핍을 가진 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닌 성인가족이 존재함으로써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가 덜 밀접하거나 부모가 부재함으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적 자본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선 변인과 달리 형제자매의 수는 자원희석(resource dilution)의 맥락에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Blake, 1981, 1989; Nisbet, 1953; Nisbet & Entwistle, 1967). 즉, 부모를 포함한 성인 가족의 수가 불변인 상태에서 형제자매의 수가 증가하면 성인 가족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어 각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감소되고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경근(2000)의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양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형제자매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 1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규재(2003)는 형제자매의 수가 2명 이하인 집단과 3명 이상인 집단의 비교를 통해 형제자매의 수가 2명 이하인 집단이 대학진학 확률이 높고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간접적인 지표 외에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로는 부모의 학습지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감독과 훈육 등이 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교육적 지원 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 지표들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 배경 요인 이외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류방란, 김성식, 2006; 류방란, 송혜정, 2009).

부모의 학습지원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직접 공부와 숙제를 지도하고 확인하거나 학교 행사 참여,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와 면담하기, 학습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Steinberg(1996)는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형태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안우환(2003)은 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대화, 학교 행사 참석, 교육적 집안 분위기 조성이 가족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 자녀가 달성하기 바라는 학업성취도 수준이나 진학하기 바라는 학교급, 학교 수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지원과 교육기대수준은 가정배경 요인 이외에 학업성취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류방란, 김성식, 2006). 같은 맥락에서 김두환(2005)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과 학생의 교육포부수준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김영희(2001)는 국내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곤계층의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교육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학업성취도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부모의 감독과 훈육은 학습지도와 숙제 확인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적 관여 행동뿐만 아

나라 자녀의 일상생활을 확인하고 관리하거나, TV와 인터넷과 같은 매체 사용을 감독하고, 친한 친구를 인지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비학업 관련 행동에 대한 감독과 훈육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식, 안우환, 2003; 김영희, 2001; 2002; 신원영, 강현아, 2008).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자본 특히,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앞서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와 대상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의 3차년도(2007년) 조사에 참가한 6,568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부모 가운데 결측 사례를 제거한 4,89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각종 사회지표와 선행연구들(강승호, 김수천, 1993; 강태중, 2007)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기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교육격차를 진단하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검증해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별 분포

구 분	인원수(명)	비 율(%)
특별시	851	17.4
광역시	1382	28.2
중소도시	2233	45.6
읍면지역	428	8.7
총 계	4,894	99.9

2. 변인의 측정과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하여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거주 지역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거주 지역 변인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거주 지역 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투입하여 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두 번째 모형의 모든 변수에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거주 지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한 변인들은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설명 및 기술통계

변인		개념	평균(표준편차)	
통제변인	거주 지역	학생의 거주지역 (읍면도시(0)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를 더미변수화(1))	특별시	5.93(.670)
			광역시	5.80(.639)
			중소도시	5.83(.674)
			읍면지역	5.59(.882)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1점)~대학원 박사과 정 졸업(7점))	특별시	4.02(1.155)
			광역시	3.86(1.139)
			중소도시	3.72(1.138)
			읍면지역	3.27(1.053)
	부모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종류 (무직(0점)~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 자(10점))	특별시	7.81(2.779)
			광역시	6.98(3.157)
			중소도시	6.84(3.121)
			읍면지역	5.74(3.124)
	월 평균 소득	부모가 보고한 1년간 근로소득과 상여금, 재 산소득, 생활보조금을 포함한 총 월평균 소 득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값 사용)	특별시	5.93(.670)
			광역시	5.80(.639)
			중소도시	5.83(.674)
			읍면지역	5.59(.882)

지역별 가정환경	한부모 가정 여부	양부모 가정=1, 기타 유형의 가정=0	특별시	.90(.294)
			광역시	.90(.300)
			중소도시	.90(.294)
			읍면지역	.84(.303)
	부모 외 성인가족의 존재	현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 있는 경 우=1, 없는 경우=0	특별시	.17(.372)
			광역시	.18(.384)
			중소도시	.20(.402)
			읍면지역	.31(.462)
	형제자매의 수	표본 학생을 포함한 자녀의 수	특별시	2.10(.641)
			광역시	2.16(.658)
			중소도시	2.23(.717)
			읍면지역	2.46(.852)
중소도시 변인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최종 교육수준 (잘 모름=0~대학원 박사 과정=6)	특별시	4.48(1.166)
			광역시	4.38(1.158)
			중소도시	4.32(1.141)
			읍면지역	4.05(1.237)
	부모의 학습지원활동	자녀의 교육과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행동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특별시	20.19(3.969)
			광역시	20.02(3.893)
			중소도시	19.73(4.069)
			읍면지역	18.23(4.260)
	학업성취도	표본 학생의 수학 척도 점수 ¹⁾	특별시	510.58(64.082)
			광역시	518.33(64.452)
			중소도시	514.39(64.407)
			읍면지역	498.96(61.067)

IV. 분석과 논의

1.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

지역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도에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지역 집단 구분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총 4894명의 대상 가운데 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851명,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1382명,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2233명,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428명이었다.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 수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교육과정 자체가 단계적이어서 학교급간, 학교간, 국제간 비교가 용이하고(조지민 외, 2007), 성취에 있어 개인배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영화, 김재웅, 류한구, 2007) 탐색적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표 4>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 검증

변 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증(Tukey)
지역 (n=4894)	특별시	851	510.58	64.082	10.693***	읍면지역-특별시
	광역시	1382	518.33	64.452		읍면지역-광역시
	중소도시	2233	514.39	64.407		읍면지역-중소도시
	읍면지역	428	498.96	61.067		특별시-광역시

*** $p < .001$

표 4에서와 같이 지역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수준은 광역시, 중소도시, 특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가 518.33점으로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읍면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는 498.96점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나타냈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가장 높은 광역시 보다 약 19점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점수에 있어서 어느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 집단이 모든 집단과, 특별시 집단이 광역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지역 변인 자체의 영향인지 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에 의한 것인지 밝히고,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이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총 3단계 모형에 걸쳐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지역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대리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투입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앞의 두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변인을 투입하여 사회적 자본의 독립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

변 인	I	II	III
상 수	499.860	398.746	362.515
특별시 더미	10.813** (.064)	-3.983 (-.024)	-7.323* (-.043)
광역시 더미	18.601*** (.130)	8.117* (.057)	4.505 (.032)
중소도시 더미	15.172*** (.117)	6.120 (.047)	3.161 (.024)
부모의 학력		11.398*** (.204)	7.865*** (.141)
부모의 직업		1.400*** (.068)	1.062*** (.051)
월 평균 소득 (ln)		9.970*** (.107)	5.754*** (.062)
한부모 가정 여부 더미			7.488* (.035)
부모 외 성인가족의 동거 여부 더미			-3.976 (-.025)
형제자매의 수			.154 (.002)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9.162*** (.165)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1.681*** (.105)
R^2	.006	.092	.134
Adjusted R^2	.006	.091	.132
R^2 변화량	.006	.086	.043
F 값	9.972	81.369	68.095

*** $p < .001$, ** $p < .01$, * $p < .05$

먼저 1단계에서 지역 요인을 투입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06으로서 거주 지역 변인이 학업성취도의 0.6%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비해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세 변인(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지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단계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92로서 지역 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학업성취도를 9.2% 설명하고, 1단계 회귀모형에 투입되지 않았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학업성취도를 약 8.6%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지위,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모두 $p < .001$ 수준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지위,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변인 가운데 특별시와 중소도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광역시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p < .05$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광역시의 효과는 앞서 분석하였던 학업성취도 평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2단계 회귀모형에 따르면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지위,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던 지역 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 하위 변인 5가지(한부모 가정 여부, 부모 외 성인가족 존재여부, 형제자매의 수,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학습지원활동)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3단계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134로서, 지역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독립적으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학업성취도 전체 변량의 4.3%를 추가 설명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여부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교육기대수준과 부모의 학습지원활동 변인은 $p < .001$ 수준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변인 가운데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의 β 값(표준화 계수)은 .165, 부모의 학습지원활동의 β 값(표준화 계수)은 .105 이지만, 한부모 가정 여부의 β 값(표준화 계수)이 .035로 나타나 3가지 유의미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변인 가운데 영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부모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학생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변인 가운데 부모의 교육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지위, 월 평균

수입 변인은 여전히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가 부모의 학력은 11.398에서 7.865로, 부모의 직업은 1.400에서 1.062으로, 월평균 소득은 9.970에서 5.754로 낮아져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지역 변인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영향력 있던 광역시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특별시의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단계 회귀 모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교육기대수준의 평균이 특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3단계 회귀 모형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거주 지역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 학생들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 변인의 영향력은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투입하였을 때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대부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읍면지역 학생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에 비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평균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상승에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주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는 개인 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거주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작동하기 때문에 읍면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교육 양극화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의 3차년도(2007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확인하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는 광역시, 중소도시, 특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총 3단계 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 변인을 투입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변인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세 변인(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지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지위,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모두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지역 변인 가운데 광역시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지위,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 하위 변인 다섯 가지(한부모 가정 여부, 부모 외 성인가족 존재여부, 형제자매의 수,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학습지원활동)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한부모 가정 여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학습지원활동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학생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거주 지역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부모의 높은 교육기대수준과 부모의 적극적인 학습지원활동이 제공된다면 학업성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거주 지역과 가정배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낮은 학업성취도를 획득하는 아동들이 학업성취도로 인해 진학, 직업 지위 획득 과정에서 불이익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시적인 효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관심의 표현과 교육적 개입을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망을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방면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적 관심과 행동의 중요성을 가정에서 공감하고, 실천하기에 제약 조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적 관심과 행동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학구적인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부족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성식, 2006; 이정선, 2005)도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만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가정외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업성취도 논의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학교 내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규명은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을 좀 더 면밀히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크게 간접적 변인과 직접적 변인으로 나뉘는데, 직접적 변인도 교육에 초점을 둔 인식과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의 질이라고 할 때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교육적인 측면에 치우쳐있어 전반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생성되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된 여러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학업성취도의 많은 부분을 예측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 변수와 함께 또 다른 독립 변수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2010).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1995-200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결과 분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능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12-66. 12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강승호, 김수천(1993). 강원도내 도시·농촌학생들의 학력차 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교육연구**, 3, 19-52.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인구 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청소년연구**, 18(2), 315-344.
- 구인회(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경식, 안우환(2003).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 탐색. **교육학논총**, 24(1), 81-99.
- 김두환(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alignment)와 학업성취도: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 김성숙(2010).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현황: 지역별 학력 차이와 학교특성 탐색.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결과 분석: 학력차이 요인 탐색과 대응방안, 3-31. 6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김성식(2006). 교육기회 획득에 대한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의 영향.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1-29. 10월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김양분, 김성식, 박현정, 신혜숙, 박종효, 김경성, 이규재(2009). 한국 교육 현황 분석: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중심으로(RR2009-37).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김재웅, 류한구(2007). 설립별 학교유형과 역사적 전통에 따른 사학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2), 53-78.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영희(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3(1), 1-14.
- 김창현, 박종택, 이성수, 박인권(2004). 농촌 정주생활여건의 지역 간 실태비교와 개선방향(R490-2). 국토연구원.

- 남궁지영, 김양분, 임현정, 김위정(2013).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V): 고등학교 연구(RR2013-24). 한국교육개발원.
- 남궁지영, 김양분, 박경호, 박희진(2014).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V): 중학교 연구(RR2014-23).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 교육의 영향력 분석(RR2006-07-02).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송혜정(2009). 초,중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경험의 영향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1-25.
- 박경호, 김양분, 남궁지영, 백선희(2015).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V): 초등학교 연구(RR2015-30).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호(2012). 도농 간 중학생 학력격차 감소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1), 77-108.
- 성기선(2011). 학교급별 도농 간 학업성취도 격차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4), 125-148.
- 성기선, 박철희, 양길석, 류방란(2009).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복지 방안 연구: 고등학교(RR ; 2009-11). 한국교육개발원.
- 손준중(2004).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읽기: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4(3), 65-90.
- 신원영, 강현아(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안우환(2003).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30(1), 1-25.
- 안우환(2006).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 탐색. **아동교육**, 15(2), 319-329.
- 오성배(2005).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자료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원지영(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9), 125-150.
- 이규재(2003). 가정배경이 학력획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과 역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인호, 이상일, 김승현(2014a).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국어 (ORM 2015-4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호, 이상일, 김승현(2014b).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수학 (ORM 2015-45-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호, 이상일, 김승현(2014c).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수학 (ORM 2015-4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정선(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 자원개발**, 37(1), 131-150.
- 이재연, 양정호(2012). 서울시 거주지역 특성별 진학대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0(2), 189-214.
- 임선희, 김경희(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6(3), 185-206.
-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2011). 도농간 교육격차에 관한 가정 및 학교배경의 효과 분석. **농업교육과 인간자원개발**, 43(1), 27-49.
- 조지민, 김명화, 최인봉, 송미영, 김수진(200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03~2006년 변화추이(RRE 2007-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상근, 김양분, 류한구, 김현진, 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CR 2003-19).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www.kosis.kr에서 2016. 1. 25 인출.
- 통계청(2015). 2014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www.kosis.kr에서 2016. 1. 25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 요청.
-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3), 309-320.
- Blake, J. (1981).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4), 421-42.
- Blake, J. (1989). *Family size and achievement*.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Milne, A., Myers, D. E., Rosenthal, A. S., & Ginsburg, A. (1986). Single parents, working mothers, and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school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9(3), 125-139.
- Nisbet, J. D. (1953).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chievement. *Eugenics Review*, 45, 31-40.
- Nisbet, J. D., & Entwistle, N. J. (1967). Intelligence and family size, 1945-1965.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7, 188-93.
- Steinberg, L. D. (1996). *Beyond the classroom: Why school reform has failed and what parents need to do*. New York: Simon & Schuster.

- Willms, J. D. (1985). The balance thesis: Contextual effects of ability on pupils' 0-grade examination results. *Oxford Review of Education*, 11(1), 33-41.
- Willms, J. D. (1987). Differences between Scottish education authorities in their examination attainment. *Oxford Review of Education*, 13(2), 211-232.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tatus and Mitigation Method in Academic Achievement Gaps among Region

Yoo-Jung Lee (Doctoral Candidate, Dong-A University)

Sung-Bae Oh (Professor, Dong-A University)

In this study focused on residential areas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verify there is a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residential areas. Also, analyzing the social capital in famil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gaps independently from the other variables. Through this, the paper aims to verify whether social capital in family can operate as a mechanism to narrow academic achievement gaps among reg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to analyze dataset of the 3rd year surveys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KELS 2005).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differences exist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place of residence. Social capital in famil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independently from the place of residence,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time and cost for private education, parents' cultural capital, and peer relationship. This study's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that social capital in family operates as a mechanism to narrow academic achievement gaps.

Key words: regional disparity, academic achievement gap, family background, social capital in family